

■ 편집후기(編輯後記)

◆ 지난해 3월, 63집 담당 간사로서 처음으로 한국일본어학회의 편집이사 업무를 수행한 이후 어느새 1년이 지나 67집의 담당 간사가 되어 간행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67집이 간행되기까지 차고 넘치는 배려와 도움을 주신 편집위원장 조영남 선생님과 편집위원 박선옥 선생님, 유수연 선생님, 이수향 선생님, 총무이사 박효경 선생님, 사무국장 박혜진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한 마음을 올립니다.

금번 『日本語學研究』 67집은 여섯 분 선생님의 기획논문과 네 분 선생님의 일반논문을 담았습니다. 일본어의 문법, 어휘, 어사, 음성·음운 및 교육과 사회언어학 분야의 최신 동향을 되짚어 보는 동시에 실증적인 연구들을 소개함으로써 회원님들께서도 무척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소중한 옥고를 보내주신 선생님들과 흔쾌히 심사를 맡아주신 국내외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서 감염병 시국이 진정되어 반갑게 뵈 수 있는 좋은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편집후기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尹)